

## 제5회 동아시아원자력포럼 참가 동아시아 4개국 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안



제5회 동아시아 원자력포럼 회의장 전경.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 원자력 동향」 세션과 「원자력 안전성 증진 방안」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제5회 동아시아 원자력포럼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KAIF)를 비롯하여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 대만 핵능급산업협회(TNA), 중국핵능행업협회(CNEA) 등 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1월 20일~21일 양일간 대만 타이베이 대만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각국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 한국대표단(단장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비롯해 7명이 참석하여 국내 원전 안전성 강화와 원전 해체 인력 양성 등을 소개하고 동아시아 원전 안전 현황 등을 논의했다.

포럼은 「동아시아 원자력 동향」 세션과 「원자력 안전

성 증진 방안」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국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동아시아 원자력 동향」 세션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이 '원전 제염·해체 추진 계획 및 인력 양성 계획', '제염해체 분야 인력 양성', '대만 원전 해체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 대책 현황 공유라는 개최 목적의 「원자력 안전성 증진 방안」 세션에서는 각국의 '원전 내진 설계 및 안전성 강화'가 발표되었다. 본 세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노력, 그리고 포럼 직전에 지진(포항지진, 11.15.)이 있었던 한국에게 특히 관심이 쏠



대만전력 방문 간담회에서 한국의 원전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한국대표단장)

렸다.

강재열 한국대표단장은 포럼에서 동아시아 4개국 간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제안하였으며, 전 참가국은 이의 진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포럼의 첫 일정이었던 산업시찰은 공정률이 약 98%에 이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잠정폐쇄 결정을 한 대만 룡먼 원자력발전소(제4원전, Lungmen NPP)에서 진행됐다.

룡먼원전은 1999년 착공 이후 건설 중단과 재개 논의를 반복한 끝에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고 현재는 자산 관리 상태에 놓인 상태다.

시찰 후 각국 대표단은 대만전력공사 본사를 방문해 핵발전사업부 Fuh-Feng Tsai 부사장(Vice President)와 간담회를 갖고 대만 원자력 현황을 포함하여 각국의 원자력 현황을 논의했다.

동아시아 원자력포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동아시아 주요 4개국의 원자력 안전 대책과 조치에 대한 정보 교류와 원자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개최되어 금년으로 5회째를 맞았다. 내년 포럼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